

무자기(無自欺) - 정신개벽(精神開闢)에 대한 이해

鄭大珍*

目次

- I. 머리말
- II. 대순진리와 무자기(정신개벽)
 - 1. 도통진경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
 - 2. 수도의 본바탕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
 - 3. 지극한 도심(道心)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
- III. 무자기(정신개벽)의 실천
 - 1. 무욕청정(無慾淸淨)의 수행
 - 2. 지성(至誠)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
 - 3. 훈회와 수칙의 생활화
- IV. 맺음말

SINCE 1996

I. 머리말

대순진리는 진멸(盡滅)에 처한 천하창생을 구제하고자 강제하신 구천상제님으로부터 선포된 종교사상이다. 상제께서는 원래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원시(原始)의 모든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들의 호소와 청원으로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사 창생구제의 대역사(大役事)를 이룩하시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라 한다. 상제께서 지닌 위대한 권능은 나아가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仙境)의 운로(運路)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셨으니 곧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

* 대순사상학술원 고문

境)은 그 세계를 반영하는 대도(大道)의 진리라 하겠다.

『도헌』(道憲)에는 본도(本道)의 연원이 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아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 내려왔다고 명시되어 있다.(도헌 제 12조) 이것은 구천상제님의 진리를 도주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며, 종단창설 당시 내세운 종지와 신조 목적으로 인해 비로소 수도(修道)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종지 신조 목적은 교리개요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나아가 신앙과 실천의 모본이 되고 있다. 종지는 곧 사상의 총체로서 내일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조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으로서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를 실천함을 말하고, 목적은 이 같은 사상과 신앙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경지를 말한다. 구천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대도(大道)의 진리는 말하자면 종지와 신조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수도해야만이 그 올바른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순진리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필자는 익히 종지와 신조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해 온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진리의 교리개요에 있어서 제시된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목적은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이 그것이다. 첫째 항목은 주로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것으로서 심성을 도야(陶冶)하여 새로운 정신을 지닌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항목은 심신(心身)일여(一如)의 경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인간상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초인간을 말한다. 세 번째 항목은 전 세계가 전쟁이 없이 영원한 평화를 맞이하고 무한한 풍요와 조화(造化)의 새시대가 도래함을 말한다. 여기서 본고가 주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에 관해서이다. 논문의 전개는 먼저 대순진리와 그 목적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와의 관계를 살펴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무자기(정신개벽)의 실천을 위한 제반 항목을 서술하여 무자가 곧 정신개벽임을 밝히기로 한다.

II. 대순진리와 무자기(정신개벽)

1. 도통진경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

대순진리의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이다. 그 수도(修道)의 목적을 도통(道通)이라고 하는데, 도통은 인륜과 도덕에 통하여 만사(萬事)를 임의대로 행하는 경지를 말한다. 이 같은 도통의 획득이 도인들 자신의 수도여하에 달려있음은 물론이다. 수도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 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욕청정의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무자기(정신개벽)라고 할 수 있다.

무자기(無自欺)는 『대학(大學)』에서 인간의 의지를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악(惡)을 미워하기를 악취(惡臭)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善)을 좋아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니 이것을 일러 스스로 만족함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 必慎其獨也) 라고 하여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수양적인 자세를 말한다. 이것은 ‘성(誠)’의 개념과도 서로 연관되고 있는데 ‘정성’ ‘성실’ ‘진실’의 뜻을 갖는 성(誠)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성(誠)은 신조의 삼요체(三要諦) 가운데 하나로서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所願成就)를 위한 마음자세이다. 나아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이러한 마음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무자기(無自欺)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위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구천상제님을 모시고 또한 모든 천지신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명은 지오지밀(至奧

至密)하여 인간의 모든 만사를 속속들이 굽어살핀다고 믿어진다.

상제께서 어떤 공사를 행하셨을 때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의 글을 쓰시고 이것을 천지 귀신 주문(天地鬼神呪文)이라 일컬으셨도
다. (공사 3장 40절)

특히 인간의 윤리도덕에 관하여 신명은 빠짐없이 살피고 있으므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신명의 수찰에 의해 단죄(斷罪)된다. (神明神明天地諸神明下鑑垂察; 교운 2장 42절)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神明)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할 것이다.(『대순지침』 p.39) 여기서 대순진리의 무자기는 특히 신명의 수찰을 전제한 자기 마음의 단속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신명이 굽어살피고 있음을 알아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야 한다.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心欺神欺)이다”고 하여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어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하였다.(『대순지침』 p.42)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人間私語라도 天聽은 若雷하고 暗室欺心이라도 神目如電이라」고 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해도 마음을 속이게 되면 신명은 어김없이 지켜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품성을 계발하여 마음을 속임이 없이 언제나 순일(純一)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무자기가 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함은 넓게 말해서 남을 못되게 하는 마음, 해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해서 솔직히 대답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행위이다.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위신과 체면 때문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솔직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게 된다. 『중용(中庸)』에 “성(誠)이란 것은 자신

을 완성시킬 뿐만이 아니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완성시킨다.”(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라고 하였다. 진실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진실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오직 진실로서만이 마음에 가득찰 때 도통진경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참된 수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참된 무자기는 곧 정신개벽이다. 개벽은 무한대로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남이 나의 정신과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나의 마음을 발전시키고 밝혀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나의 마음을 속인다면 무한한 하늘의 덕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덕(德)은 남을 잘 되게 해주려는 마음이다.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이러한 덕을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하늘이 내려주는 무한한 덕은 자기 마음의 문이 밝게 열려 있을 때 받을 수가 있다. 개벽은 그와 같은 하늘의 덕을 무한정 받아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의 정신이 개벽되어야 도통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개벽이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의 용기가 필요하다.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자기(無自欺)가 된다. 잘못의 발견은 위대한 지식이라서 윗사람이라 해서 위세로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난법난도(亂法亂道)가 되어 화합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대순지침』 p.80 참조) 나의 마음을 언제나 양명(陽明)하게 밝혀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정신개벽이며, 이러한 개벽이 됨으로써 도통진경을 이루게 되니 무자기-정신개벽은 결국 도통진경이 내포하고 있는 주된 뜻으로 볼 수 있다.

2. 수도의 본바탕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

수도(修道)는 심신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순진리회 요람』 참조) 여기서 수도의 본 바탕이 되는 것은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으로서 오직 상제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다. 상제님을 향한 정성에는 어떤 사리(私利) 사욕(私慾)도 개입될 수 없으며 순수한 신앙심과 험이 없는 열정이 그 주된 내용이 된다. 일체의 자부자찬(自負自讚)의 마음을 버리고 수도의 완성만을 기하는 것이 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도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자신의 심성을 도야(陶冶)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도를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자세에서부터 속임이 없이 참되고 정직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무자기라고 할 수 있다.

무자기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모든 수도를 위한 바탕이 될만하다. 특히 수도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무한히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자기는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신개벽으로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 첩경이라 하겠다.

상제께서 전주 불가지(佛可止) 김 성국(金成國)의 집에 가 계실 때의 어느날 김 덕찬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을 귓가로 들었도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덕찬에게 「이제 용소리 김 의관(金議官)의 집에 가서 자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는 명을 좇아 용소리로 떠나느니라. 그가 김 의관의 집 근처에서 취한으로부터 심한 곤욕을 당하고 불가지로 돌아오니라. 상제께서 문 바깥에 나와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왜 자지 않고 되돌아오느냐」고 물으시니라. 덕찬이 공연히 보내어 봉변만 당한 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도다. 상제께서 덕찬과 함께 방안에 들어오셔서 술을 권하며 가라사대 「사람과 사귄 때 마음을 통할 것어늘 어찌 마음을 속이느냐」 하시니 그는 상제를 두려워하니라. 그후부터 덕찬은 지극히 적은 일에도 언행을 삼가하였도다. 상제께서 두 달동안 용소리 시목정(龍巢里柿木亭)에 계시면서 이곳 저곳의 종도들의 집에 다니셨도다. (행록 4장18절)

윗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편리만을 위해 처세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솔선수범하는 것은 무자기를 이루는데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은 진정한 무자기(無自欺)의 상태에서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수도의 바탕이 무자기라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무자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남

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언행은 마음의 외침이고 자취임을 익히 알고 있다.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하는 것이 누적되면 죄가 된다. 도덕적으로 벗어난 것은 다 죄라고 할 수 있다. 도둑질을 예로 든다면 마음에서부터 도둑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미 범행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실제로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응당의 죄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예시 17절) 고 이르고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예시 30절)고 한 상제의 말씀을 되새길 때 도인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이 진실된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속임이 없는 언행이야말로 수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남을 속이지 말것이니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 (교법 1장 57절)

죄중에 노름의 죄가 크나니라. 다른 죄는 혼자 범하는 것이로되 노름 죄는 남까지 끌어들이고 또 서로 속이지 않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교법 1장 58절)

비록 다 쓴 성냥갑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버리고, 노름과 같은 사행(邪行)을 일삼지 않는 것이 또한 무자기이다. 수도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사(私)가 없이 성·경·신(誠敬信)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타인을 속이지 않음으로써 도인의 자세가 마련된다 할 것이다. 성(誠)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敬)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순지침』 p.54) 성·경·신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무자기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무자기는 수도를 위한 본바탕이 되고 있다.

3. 지극한 도심(道心)으로서의 무자기(정신개벽)

무자기는 또한 지극한 도심(道心)과도 통한다. 도심은 오직 공(公)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사(私)는 인심이요 공(公)은 도심(道心)이니 도심이 지극하면 사심(私心)은 일어나지 못한다(『대순지침』 p.93)고 지적하였듯이 인심 사심이 물러가고 도심(道心)만이 가득 찼을 때 진정한 무자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심(人心)과 사심(私心)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고, 도심(道心)은 전 인류가 고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마음이다. 즉 공(公)에 지극한(無私至公) 인도(人道)의 마음이다. 이러한 도심은 진심(眞心)이고 일심(一心)이며 또한 정심(正心)이 된다. 진심은 오직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일심은 대월(對越)상제를 영시(永侍)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며, 정심은 모든 언행이 윤리도덕에 맞게끔 행하는 본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도(道)는 특히 신도(神道)를 의미하고 인위적인 사도(邪道)와 구분된다. 신도란 도인들의 일상에 언제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여 속임과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해 나가는 진리이다. 신도(神道)를 지키고 받들며 진심과 일심, 정심을 가져나감으로써 무자기를 이룰 수 있다.

최 수운의 가사에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이라 하였으나 상제께서는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라 하셨도다. (교법 2장 3절)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 (교법 2장 7절)

윗 글에서 진심은 곧 도심이다. 수도의 목적이 도통이므로 도통하고자 하는 진심을 끝까지 간직해 나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진심을 간직하는 자는 또한 일심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 정심이 됨으로써 매사에 모범적이며 올바른 행동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해당하는 도통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교법 2장 6절)

고 하신 말씀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장애와 극복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장애를 일컬어 겁액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겁액을 극복하고 나아가는데 성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침에 이르기를 「“함지사지이후(陷之死地而後)에 생(生)하고 치지망지이후(致之亡地而後)에 존(存)한다”는 옛사람들의 말이 있음과 같이 복(福)은 곧 복마(伏魔)로 풀이함은 ·화복(禍福)이란 말과 대등할 것이다.」 (p.94)라고 하여 수도에는 언제나 고난의 요소가 숨어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겁액에 굴복하여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데서 탈선이 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앞길을 막아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난과 겁액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진실한 도심에서부터 나온다. 도심을 가진 자는 분명한 주관(主觀)이 있고 신념(信念)이 있다.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주관(主觀)이 바로 서지 않을 수 없다. 주관이란 소신(所信)이며 옳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나의 정신과 소신대로 살아가야지 남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매사에 내가 어떻게 소신껏 처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상제께서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나니라.”(교법 2장 53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자기의 소견을 키워나가는 것이 또한 수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신념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근본이 바로 세워짐으로써 진실한 도심(道心)이 나올 수 있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 『論語』) 수도란 이와 같은 도심을 간직하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서 도통진경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무자기는 바로 그 도심(道心)을 지극히 지녔을 때 달성되는 수도인의 경지라 하겠다.

Ⅲ. 무자기(정신개벽)의 실천

1. 무욕청정(無慾淸淨)의 수행

무자기를 실천하기 위해 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우선 바른 수도를 위한 노력이다. 수도의 목적을 도통이라고 했을 때 그 도통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1장 41절)

즉 상제께서 내려주시는 도통은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서 도인 각자가 심신(心身)으로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도통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이 수도과정에서 개혁되어 있지 못하면 도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수도라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불필요한 사욕(私慾)을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사사로운 욕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자연히 도심(道心)이 생겨난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무자기이다.

도(道)에 뜻을 두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정기(正氣)는 물러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된다. 허령은 헛된 일에 정신을 빼앗겨 자기의 본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광증(狂症)이므로 “허(虛)가 내리면 진(眞)을 받지 못한다”(『대순지침』 p.40)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도 두 사람이 상제 앞에서 사담하기를 「남기(南基)는 일본말을 배우지 못함을 후회하고 영서(永西)는 배우가 되지 못함을 후회하니라.」 이때 갑자기 남기는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고 영서는 상복을 입은 채 상건을 흔들며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상복 소매로 복치는 시늉을 해보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느니라.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남기의 말은 일본사람과 틀림 없고 영서의 재주는 배우 중에서도 뛰어나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 하느니라. 그제야 상제께서 타이르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자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느니라」 하셨도다. (교법 2장 29절)

허령이 들면 헛된 욕심을 가지게 되고 신명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 오직 상제님의 진리만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상제께서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신 것은 수도인들의 허영과 야망심을 경계하신 말씀이다.(『대순지침』 p.42) 무자기를 말로만 부르짖고 돌아서서는 엉뚱한 행동만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처사이다.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허세를 버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된다.(『대순지침』 p.71) 자신의 마음에 불필요한 허욕을 버리고 도인의 본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무자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정신개벽이다.

2. 지성(至誠)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

무자기는 또한 지성(至誠)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달아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지성(至誠)으로 수도하는 데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성(誠)은 하늘의 도(道)이며 성(誠)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道)라고 하였다.(『중용』) 하늘의 천성(天性)이 곧 나의 몸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여 인성(人性)의 순선(純善)함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정성을 들이고 진실되게 행함으로써 지성(至誠)에 이르게 되면 신(神)과 같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至誠之道 可以前知 … 善必先知之 不善必先知之 故至誠如神; 『중용(中庸)』) 자신의 온 정성을 모아서 하나의 일에 소신껏 처리해 나가면 그 소견이 만사(萬事)에 통해서 즉견(卽見)즉심(卽心)이 되는 것이다.

성(誠)은 또한 미유부동(未有不動)하여서 움직이지 않는게 없다. 자신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서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성(誠)이다. 이러한 성(誠)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심정(心定)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순지침』 p.41) 자성(自誠)으로 이루어 놓은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신(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상동 p.42) 그러므로 수도인이라면 지극한 성(誠)으로 바르게 도 닦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때에 오랫동안 가물었도다. 상제께서 갑철에게 청수 한 동이를 길어 오게 하신 후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래와 옷을 벗고 물동이 앞에 합장하고 서 있어라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와서 만인의 갈망을 풀어주리라.」 갑철이 말씀대로 옷을 벗고 동이 앞에 합장하여 서니 문득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니라. 이때 상제께서 갑철에게 「청수를 쏟고 옷을 입으라」 하시고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들도 지성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류 찬명이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이 다 모르니 원컨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널리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고 아뢰었도다. (권지 2장 35절)

윗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성(至誠)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미유부동(未有不動)으로서 소원성취하게 해주는 힘이다. 수도인의 소원은 곧 도성덕립(道成德立)이며 도통(道通)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곧 목적이며 수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도통(道通)에 대한 욕심은 한 개인의 사욕(私慾)과는 성격이 다르며 만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공욕(公慾)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욕심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욕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도통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오직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지성(至誠)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천상제께서 이룩해 놓으신 천지공사로 모든 인류가 도화선경의 낙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끝없이 알려나감으로써 덕화를 선양해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상제님의 진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고, 그 전까지 지녔던 허망한 욕심을 버린다면 이로써 무자기 정신개혁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3. 훈회와 수칙의 생활화

무자기(정신개혁)의 실천에 있어서 수도인은 기본적으로 훈회와 수칙을 준행해야 한다. 훈회란 구천상제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일깨우기 위한 실천 조목이요, 수칙이란 수도단체로서의 종단이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표방되고 지켜야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훈회와 수칙은 실천하여 생활화하는데서 빛이 난다.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도인은 특히 훈회와 수칙을 진실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훈회와 수칙을 준행하는 것이 곧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인은 훈회와 수칙을 준수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순지침』 p.44)

훈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 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 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 (『대순지침』

p.43)이라고 하였다.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이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한 훈회는 바로 ‘무자기(無自欺)’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곧 수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人性)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는 것이 무자기이다.(「대순진리회 요람」 p.19) 그 마음이 무자기가 됨으로써 모든 말과 행동은 따라서 정직해지고 진실해진다. 말은 남을 잘되게 하는 덕(德)이 붙어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행동은 남에게 척(慼)을 짓지 않으며 항상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으로써 대해야 한다. 또한 남이 나에게 베푼 해택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이며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남을 잘 되게’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칙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사회적인 방향에서 법질서 준수와 제반 윤리도덕을 준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므로 수칙을 준행하여서 사회적으로 덕화를 선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종단에서 행하고 있는 3대 중요사업도 이러한 수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모두가 종단의 건전한 발전과 덕화선양을 위한 길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玉條)니 양심을 속임과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함’이라는 수칙은 모든 실천의 바탕으로서 무자기를 밝힌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훈회와 수칙은 모두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자기(정신개벽)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정형화된 방안은 종단의 훈회와 수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무자기-정신개벽에 대한 개요와 그 실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순진리의 교리에 있어서 목적은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크

게 보면 하나의 종합적인 도통에 이르기 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기본적인 항목으로 제시된 무자기(정신개혁)는 도인의 수도과정에서 이루어야만 할 정신적인 경지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무자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니 첫째가 도통진경이며 둘째가 수도의 근본바탕이며 셋째가 지극한 도심이었다. 요약하자면 이 모두는 무자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헛된 욕심을 버리며 오직 상제님의 진리만을 생각하는 정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청정(淸淨)한 성품으로 언제나 바른 수도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정신개혁을 이룰 수 있다. 무자기는 곧 정신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자기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의 헛된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지극한 정성(精誠)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하고 종단에서 제시된 훈회와 수칙을 철저히 준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수도의 목적이 도통인 이상 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상제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고 개인간의 신의로써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은 모두 도통에 대한 순수한 목적의식이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자기이다. 따라서 도인이라면 먼저 그 마음의 바탕에 무자기(정신개혁)라는 경지를 이룸으로써 수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알아 끝없이 정진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